대구지역 가톨릭 의료기관의 조직과 활동현황

메리 엑네스 살벨수녀
대구파티마 병원장

주최측에서 대구지역 가톨릭 의료기관의 조직과 활동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대구지역을 대구교구로 생각했읍니다.

현재 대구대교구 내에는 네개의 의료기관이 있읍니다。대구 파티마병원, 포항 성모병원, 칠곡 가톨릭피부과병원, 그리고 성베네딕도 연화 결핵요양원이 있읍니다. 앞으로 신축 중인 대구 가톨릭병원이 개원되면 대구교구내 의료기관 간에 상호협력과 또, 우리들의 공동목표인 가톨릭병원으로서의 사회봉사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직이 없어도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협력이 잘되어 왔지만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병원관리 및 행정을 위해서는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현재 각 의료기관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겠읍니다. 저희 병원은 뒤로 미루고 먼저 **포항성모병원**은 포항예수성심 시녀회에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1977년 6월에 12개과와 13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하였읍니다. 포항성모병원은 포항공단을 포함하여 동해안지구 일대의 질병예방과 진료를 위한 종합의료시설로서 인근의 무의촌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150병상을 증축할 예정이며 커다란 발전이 기대되고 있읍니다.

1979년도 진료실적을 소개하면 외래환자 연인원 73,859이고 입원환자 연인원 28,972로 그 중에서 의료보험환자가 외래 66% 입원 62%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 병원은 나환자 진료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1957년에 이미 나환자진료소를 개설하였고 십년 후에는 약 40세대를 정착시키고 양돈양계로 자활을 뒷바침해 주어 현재도 40세대에 120여명을 돌보고 있읍니다.

가톨릭피부과병원은 엠마 프라이징거원장에 의해 1960년부터 대구대교구의 구라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65년에 병원을 신축 정식 개원을 보게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은 나환자들의 입원치료, 수술, 환자자녀 교육비지원, 전국내 정착장의 자립비지원, 교육실시, 행복한 가정운동계몽사업, 구라주일행사, 불구환자수용조치, 이동진료사업, 나병조기발견을 위한 일반피부질환의 상담과 진료 등을 주로 하며 구라사업의 후원을 위해서 릴리회를 주관하고 있읍니다. 진료과목은 피부과, 안과, 치과등 3개과이며 1979년도 외래 일반환자 연인원 56,465인데 그 중 나환자가 4,055이고 입원연인원은 16,812였읍니다. 나이동진료반은 칠곡, 군위, 의성 3개군에서 활동하며 총 검진수는 27,101로 구라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성베네딕도 연화결핵요양원은 왜관 성베네딕도 수도원에서 1975년 설립 개원하였는데 경북 칠곡군 연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자병동 42, 여자병동 25, 계 67병상으로 결핵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한 환자가 입원하면 그 기간은 9개월이며 외래환자는 1주일 1회진료하고 있읍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은 1956년

에 파티마의원으로 시작하여 1962년 8월에 병원으로 승격되면서 70베드에서 시작하여 1965년에는 교육병원으로 인정되었고 1972년에는 외래병동을 증축하고 1976년부터 193병상으로 가동되어오다 1979년 병동증축에 착공하여 금년 3월 25일 증축완료와 동시에 292병상으로 허가되었읍니다. 현재 15개 진료과에 전문의 24명, 수련의 72명 계 96명, 간호원 104명, 그외 일반직원 185명 수녀 30여명을 포함하여 500여명의 대가족이 움직이고 있읍니다. 일반환자의 진료실적은 1979년도 외래환자 연인원 208,785, 입원환자 연인원 80, 103이며 그 중에서 의료보험환자가 외래 53%, 입원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모는 3,194명 중 의료보험이 47% 일반이 53%로 거의 반반이고, 의료보호와 의료시혜가 입원 5%, 외래 3% 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외에 나이동진료로 상주, 문경, 성주, 선산, 금릉, 등 5개군에서 주로 활동하며 1979년도 진료총연인원은 17, 683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자료 뒤에 보시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5개군 내의 나환자의 실태를 자세히 보실수 있는데 5개군에 있는 1,813명 중 약 10%인 175명이 양성환자이며 그 중 5%가 대구 파티마병원의 다미안진료소에 통원진료를 받고 있읍니다. 군단위에 거주하는 환자는 정규적인 이동진료시 검진할 수 있으나. 도심지의 환자는 일일이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방문이 불가능하므로, 도시 나환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배려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외에 산동의원은 정부가 무의촌진료센타로서 설립한 진료소로서 대구파티마병원이 의사, 의료기사, 간호원등을 파견함으로 인력지원을 맡고 있읍니다.

그 밖에 대구교구내에서 규모는 작지만 농촌지역에서 특히 결핵환자와 나환자 진료로 봉사하는 성심의원을 빼놓을 수 없읍니다. 성주군 소천면 용봉리에 소재하는 성심의원은 왜관 성베네딕도 수도원에서 경영하고 있으며 대구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원에서 의사, 간호원으로 두 수녀를 파견하고 있는데 12병상을 갖추고 나환자와 결핵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소가 있으며 현재 약 70명의 결핵환자가 통원진료를 받고 있으며, 경북 왜관 삼청동 나환자정착촌과 성주 용봉정착촌의 약 450여명에 대한 질병예방, 진료를 성심의원에서 전담하고 있읍니다.

다른 하나는 가톨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나 대구시립요양원 (달성군 월배면 월배읍 송현동 982)에 대구교구 신부님이 원장으로 계시고 대구시의 시비보조와 대구파티마 병원의 의약품등의 지원으로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해주며 그 동안에 기술양성, 나아가 취업까지 알선하고 있는데 1979년에는 18명이 퇴원과 동시에 취업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교구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말씀드렸읍니다. 앞으로 200병상 규모의 대구가톨릭병원이 개원되며 대구시내에도 가톨릭의료기관이 둘이 됩니다.

지금도 서로 협력을 아끼지않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면에서 보조를 맞추어야 할것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가톨릭의료기관들이 혹시 가톨릭병원협의회 대구대교분과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할것같읍니다. 그 명칭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것은 대구에 가톨릭의사회와 간호원회는 잘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가톨릭의사회는 경북의대 황기석박사를 중심으로 50여명의 회원이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으며, 간호원회도 자기성화와 효율적 봉사활동,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대구지역 가톨릭의료기관의 조직과 현황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